

# “아쉽지만 잘 싸웠고, 선수들 자랑스럽다”

### 현장르포 'U-20' 광주 거리응원전 가보니

#### 시민 1만여명 문화전당 하늘마당 등서 '밤샘 응원' 쌀쌀한 날씨·많은 인파 불구 안전질서의식 돋보여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최초로 FIFA 주관 대회에서 결승전에 오른 U-20 국가대표가 우크라이나와의 경기를 치른 가운데 광주 지역 거리응원 장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에는 시민들의 응원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특히 가족·친구·각종 단체에서 왔든 하늘마당에는 경기 시작 전부터 대한민국의 선전을 응원하는 각종 응원 도구들과 문구로 가득했다.

16일 자정께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FIFA 주관 대회 중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U-20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1만여명의 시민들이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응원전에 나섰다.

거리응원전에는 대한민국 축구팀 유니폼을 입은 가족단위 시민들이 하늘마당을 찾았고, 폴란드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모교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

해 단체로 응원에 나선 광주금호고등학교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새벽시간대라 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따뜻한 커피나 녹차 등으로 몸을 녹이며 응원을 했고, 일부 시민들은 담요 등으로 몸을 덮고 응원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 시작 전 무대에서는 전날 밤 10시 30분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무대로 흥을 이끌었고,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통기타 밴드가 각종 응원노래를 부르며 이른 시각부터 거리응원에 나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거리응원전 장소에 나온 시민들 중 20~30대가 많았는데 경기 시작 마지막 30분간은 DJ가 리드하는 EDM 무대가 열려 시민들의 응원열기를 고조시켰다.

이나경씨(52·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때도 거리응원을 나섰을 만큼 축구를 좋아한다”면서 “오늘 축구를 보기 위해 월드컵경기장까지 갔다가 하



16일 새벽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팀의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결승전 야의 응원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취골을 넣자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늘마당을 찾았다”고 말했다.

새벽 1시 드디어 결승전을 알린 주심의 휘슬이 울리자 하늘마당에 모인 축구팬들과 시민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고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쳤다.

이번 대회의 신데렐라인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하고 패스할 때마다 시민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

광주·전남 출신의 엄원상 선수가 화면에 잡힐 때마다 모교 후배들은 물론 시민들도 박수로 이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경기는 전반 4분 이강인 선수의 선취골로 앞섰지만 전반 막판과 후반에 연속골을 허용하면서 패배했지만, 시민들은 선수들을 탓하기보다 최선을 다한 것에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KT&G 상상유니브 상상프렌즈팀으로 응원을 왔다는 양승훈씨(22)는 “자리를 잡기 위해 오후 9시부터 하늘마당을 찾았다. 시험기간인데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 결승전에 올랐다는 소식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이강인 선수와 엄원상 선수가 골을 넣어 2대 1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아

쉽게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준 선수들에게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광주지역 거리응원전에는 ACC 하늘마당과 5·18민주광장 등지에 1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경기 끝나기 전까지 뛰거나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고, 술이나 흡연으로 인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등 안전과 함께 질서정연하게 응원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6~26	흑산도	17~24
담양	17~27	구례	17~28
화순	17~26	곡성	17~28
영광	16~26	완도	17~26
함평	16~26	강진	17~26
무안	16~25	장흥	17~26
영암	16~26	해남	15~25
진도	16~25	고흥	17~25
신안	17~24	보성	17~26

일출 05:18 일몰 19:49  
월출 19:44 월몰 05:05

목포	만조 02:12 14:07	여수	만조 08:53 21:37
	간조 07:26 19:26		간조 02:58 14:51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경찰, 집단폭행 10대들 살인죄 검토 “사망 예견하고도 폭행” 정황 확인

경찰이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법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군(18)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B군(18)을 수습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사망을 예견했던 정황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었다. 즉 사망원인이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는 소견이다. 실제 B군의 신체는 폭행으로 생긴 멍자국으로 뒤덮였으며,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결정타는 가해자의 진술이었다.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폭행으로 B군이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반복하고, 폭행 과정에서 별다른 치료조치도 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한편,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 “선배들처럼 즐기는 경기하고 싶어요”

### 거리응원 나선 ‘광주FC U-15’ 선수단

“선배들이 결승전에 간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들처럼 즐기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16일 새벽 거리응원 메인무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는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 발 디딜 곳이 없었다.

광주시는 하늘마당 외에 5·18민주광장에도 스크린을 설치해 쉽게 하늘마당에서 발을 되돌리는 시민들도 결승전을 볼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광주FC U-15’ 선수들 30여명이 한쪽에 자리했다. 아쉽게도 우크라이나에 역전패를 당했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를 뽐낸 선수들을 응원했다.

자리에 함께 한 배진주 ‘광주FC U-15’ 감독(44)은 “자정께 선수들 30여명과 선수 학부모 20여명 등 50여명과 함께 거리응원을 위해 민주광장을 찾았다”며 “16일 오후 기성용 선수가 참석하는 광주FC 홈경기 흥보도 할 겸 소속팀 선수들에게 결승전을 보면서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이 자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지션이 같은 이재익 선수를 가장 좋아한다는 장준혁 선수(15)는 “밤늦은 시각이지만 선배들이 하는 경기를 응원하러 왔다”면서 “광주FC 선수 중 엄원상 선배가 경기후반에 나왔다. 엄 선배를 비롯해 모든 선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장 선수는 또 “FIFA가 주최하는 경기 중 처음으로 결승전을 치른 선배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선배들처럼 재미있게 즐기는 축구를 하고 싶다. 선배들께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응원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FC U-15선수 30여명은 16일 새벽 U-20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5·18 민주광장을 찾았다.

### 함평군청 1인 시위자 폭행 40대 상해혐의 구속...경찰 대응 논란

군청 앞에서 1인 시위하던 주민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함평경찰서는 1인 시위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49분부터 5분여간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B씨(37)를 폭행하고 육살한 혐의다. 사건 당시 군청 맞은편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려 현장을 찾은 사복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이 전화로 112신고 출동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담당 경찰에게 연락하며 출동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 누워만 있어도 노폐물이 펑펑!

## 100% 자연열! 편백효소 찜질!

“면역력은 쭉~욱! 노폐물 쫓~악! 다이어트와 힐링을 한번에!”

### 편백나라 효소공

예약문의 062) 372-5888  
광주 서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건너편 동양사우나 2층

25 WELLNESS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각 방송국에서 절찬 소개된 편백효소찜질의 효과

체온도 올리면 자연면역치유력이 5배증가한다?  
미생물의 자연열에 의한 1.체온상승에 의한 면역력 증강 효과  
2.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배독효과 3.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는 기혈작용  
4. 전신의 혈자리를 자극하는 뜸효과

편백나라 효소공 5코스

1. 편백효소욕(15분) 2. 기계마사지(15분)  
3. 편백 적외선 반신 욕(20분) 4. 파라핀, 족욕 5. 허브찜질

편백나라 효소공! 대한민국 대표 힐링 명소 “웰니스 25”선정 (광주 단 1곳 선정) 기념 세일!

웰니스25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추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명소. 25곳 선정 주관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체인·가맹점문의

※ 광주지점 : 남구, 북구, 광산구, 동구 각 1개소  
※ 전남·북지점 : 여수, 광양, 담양, 화순, 나주, 목포, 영광, 전주 각 1개소 150평이상 사업면적

문의전화 010-9282-8088